



재미·별미·의미 ‘3미’ 즐기는 광양전어축제

12~14일 망덕포구... 전어잡기·전어구이 체험 등
정병욱 가옥·운동주 시 정원·선소기념관 등 투어

탄탄한 육질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광양 전어가 올 가을 망덕포구를 가득 채운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4회 광양전어축제는 전어잡기와 전어구이 체험, 해상 전어잡이 시연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이번 축제는 ‘재미·별미·의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3미(味)’ 축제’로, 전어잡기

와 전어구이 체험, 진월전어잡이소리 시연 등 전어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해상 전어잡이 시연이다. 13일과 14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시연은 개최 이래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직접 전어를 잡는 모습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기간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한 전어가요제도 열린다. 12일 예심을 거쳐 14일 본선 무대에서 초대가수 축하공연과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전국 초등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된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세상에 시의 아름다움을 알린 정병욱 교수와 운동주 시인의 우정을 기리는 이번 대회는 섬진강과 망덕포구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와 감성을 북돋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상 1명 30만원, 우수상 1명 20만원, 장려상 1명 10만원, 입상 3명 각 5만원이 수여된다.

축제와 연계한 ‘스텝프를 받아라’ 이벤

트도 눈길을 끈다. 정병욱 가옥, 운동주 시 정원, 선소기념관, 염생 식물 군락지 등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며 스텝프를 완성하고 본부석 부스에 제출하면, 맨손 전어잡이 1회 체험권 또는 전어구이 한 접시가 제공된다. 이벤트는 13일과 1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이외에도 광양시립합창단,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황금동사물단, 7090포크뮤직, 매직 저글링 등 다양한 공연과 화려한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망덕 먹거리타운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주차는 행사장 입구 전어조형물 인근 임시주차장과

진월초등학교 뒤편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이현주 시 관광과장은 “망덕포구에서 잡힌 전어는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의 빠른 물살 덕분에 탄탄한 육질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며, 갈송·미네랄·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어린이의 뼈 성장부터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가족의 가을 먹거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먹거리, 역사·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제24회 광양전어축제와 함께 재미·별미·의미를 모두 만족시키는 오감만족 가을 광양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키크보드·자전거 불법주차 단속
순천,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순천시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키크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에서 ‘순천시 전동키크보드’를 검색하거나 시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일시 △위치 △기기 QR코드 △현장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가 즉시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횡단보도 △보도 중앙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치에 불법 주차된 공유자전거와 전동키크보드다. 오픈채팅방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이번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키크보드 이론 및 주행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모바일 합평상품권 혜택 확대
11월까지 할인 20%·한도 2배

합평군이 모바일 합평사랑상품권 할인율을 20%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두 배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합평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바일 합평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월 50만원 한도로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 판매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침수 피해를 당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5%와 특별재난 지역 5% 추가 국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캐시백 혜택으로 제공된다.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20%가 캐시백으로 적립돼 다음 결제 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군수는 “이번 합평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가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평=최일균 기자 6263739@

정기명 여수시장, 중국서 ‘섬박람회’ 참여 독려

한인회·총영사관 등과 협력
세계호남인의 날 개최 논의

내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가 참가국 확대와 여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여수시장은 최근 중국 청다오에서 열린 ‘2025 해양협력발전포럼’에 초청받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여 독려를 위한 국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정기명 시장은 지난 6일 첫 일정으로 청다오 양제정 한인회장과 임원들을 만나 섬박람회의 비전과 참여 방안을 설명했다.

청다오 한인회는 3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중국 내 최대 한인단체로 약 1만5000명의 교민을 아우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인회는 박람회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대규모 행사에 정 시장의 홍보 영상을 송출하기로 협의했다.

또 양측은 매년 10월 열리는 ‘세계호남인의 날’을 섬박람회 기간에 맞춰 여수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 상생의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7일 자오 옌 청다오시 인민정부 부시장과 당 간부들을 만나 중국 내 기관의 적극적인 섬박람회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의미를 더했다.

이어 정 시장은 청다오 청양구 부구청장,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의 해양 발전 사례를 공유하며 교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를 계기로 청다오 한인회와 청양구민 120만명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섬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둘째 날인 지난 7일에도 섬박람회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류창수 주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를 만나 총영사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자오 옌 청다오시 인민정부 부시장과 당

간부들을 만나 중국 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8일 2025해양협력발전포럼에서 발표 세션에 참여해 섬박람회를 홍보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개최된다.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에 섬 주제관과 세계 섬 식당 등 8개의 전시관과 테마존이 운영되며, 여수 세계박람회회장에서는 국제학술대회가, 금오도·개도 등에서는 가족 섬 캠프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농촌왕진버스, 고흥군민 건강지킴이 ‘우뚝’
군, 올해 6번째 진행... 농촌 의료 서비스 활성화

고흥 팔영농협의 ‘농촌왕진버스’가 최근 영남·점암·과역면 주민 400여명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을 위해 고흥군과 지역 농협이 협력해 총 2억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운영된 ‘농촌 왕진버스’는 고흥농협을 시작으로 녹동·두원·홍양·풍양농협에 이어 이번 팔영농협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과역면 잠살이조가비촌에서 진행된 이번 진료는 내과, 양한방,

안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무료 검진과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녹동현대병원이 협력 병원으로 참여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며,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과 교통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해 농촌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공영민 군수는 “농촌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왕진버스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 팔영농협의 ‘농촌왕진버스’가 군민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https://www.instagram.com/hongdorestaurant/

배달의민족 주문가능

싱싱함이 살아있는 맛—

홍도횃집

점동 / 감성동 / 농어 / 광어 / 세꼬시

광주 남구 봉선로 19번길 3 | 062-652-0747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 사자평면문화재단

유비게 전문